너무 심한거 아니야!

1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삼성하우젠 K-리그 서울-광주 경기에서 서울 박주영(오른쪽)이 문전대시하다 광주 박요셉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답답한 전남 축구… 또 무승부

전북과 0-0 … 7경기 연속 비겨
광주도 서울과 승부 못가려

전남드래곤즈가 7경기 연속 답답한 무승부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은 16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삼성하우젠 K-리그 2006 9라운드 경기에서 전북과 득점없이 0-0으로 비겼다.

전남은 이로써 지난 3월 15일 울산전의 1-0 승리 이후 7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1승 8무로 7위에 랭크됐다.

광주상무도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고 1승 5무 3패로 12위에 머물렀다.

광주와 서울은 전반 29분 광주 남궁도의 슈팅과 전반 36분 서울 히칼도의 프리킥이 살짝 골대를 비켜간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채 헛심만 쓰고 말았다. 박주영은 5경기째 깊은 침묵을 지켰다.

수원 삼성은 후반 7분 '총알 탄 사나이' 김대의가 천금같은 결승골을 뽑아내며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던 성남 일화의 무패 행진을 가로막았다.

또 연고지를 부천에서 제주도로 옮긴 제주 유나이티드는 9경기 만에 애타게 기다려온 첫 승을 올렸다.

제주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 홈 경기에서 김상록, 변재섭, 다실바가 릴레이 골을 터뜨려 3-0 완승을 거뒀다. 개막 이후 8경기 무승(4무4패) 끝에 간신히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했다.

전반 5분 터진 김상록의 선제골은 제주의 홈 첫 골이다.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은 4경기 무승(2무2패)의 부진에 빠졌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FC의 인천 경기는 득점없이 무승부로 끝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비스 "서장훈을 막아라"

19일부터 삼성과 챔프전
올시즌 평균 16.8점 내줘

'서장훈을 막아야 이길 수 있다'

울산 모비스가 19일부터 2006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는 서울 삼성의 서장훈을 막으려는 대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네이트 존슨과 올루미데 오예데지와 더불어 삼성에서 '용병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서장훈의 수비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임근배 모비스 코치도 "서장훈은 용병이나 다를 바가 없다. 챔프전에서는 서장훈과 두 명의 장신 선수를 어떻게 막을 지가 관건"이라면서 "예전 방식대로 수비를 할 지 아니면 수비에 변화를 줄 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모비스 입장에서는 크리스 윌리엄스와 제이슨 클락이 삼성의 외국인 선수 2명을 막아 준다 하더라도 내외곽을 오가며 공격에 가담하는 서장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

올 시즌 평균 19.7득점을 올린 서장훈은 이번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똑같이 경기당 평균 19.7점을 넣기도 했다.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순위 1위. '짠물 수비'로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모비스지만 이번 시즌 삼성과 6경기에서 서장훈에게 평균 16.8점, 6.8리바운드를 내주며 상대 전적에서도 2승4패로 열세를 보였다.

모비스는 이에따라 이번 챔프 전에서는 서장훈 수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 혼자 서장훈을 막던 기존의 방법을 바꿔 가드와 포워드까지 가세, 서장훈을 상대로 강력한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내볼이야" 한국의 윤성훈(오른쪽)이 16일 중국 창저우서 열린 11회 월드컵 하키 예선 B조 3차전에서 일본의 비토 유타카와 골 다툼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영표 풀타임 활약 평점 7점

토튼햄 1-0 승리 이끌어

이영표(29·토튼햄 핫스퍼)가 올 시즌 25번째 풀타임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1-0 승리에 기여하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7점을 받았다.

이영표는 16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끝난 2005~200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4차전 에버튼과 원정경기 후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인상적이었다(imposing)"는 평가와 함께 7점을 받았다.

이영표는 이날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선발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의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토튼햄은 전반 32분 로비 킨이 상대 수비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차넣어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부상으로 출전 좌절"

독일 월드컵 홈페이지 소개

2006 독일월드컵축구 공식 홈페이지(http://fifaworldcup.yahoo.com/06/)가 '비운의 골잡이'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의 부상 소식을 안타깝게 전했다.

영문판 홈페이지는 16일(이하 한국시간)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한국의 막내 공격수였던 이동국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불의의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 꿈이 좌절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국은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다음달 11일 발표할 한국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 중앙 포워드로 선택될 '1번 선수'였고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여러 차례 터뜨렸는데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돼 독일행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게재했다.

이원희 '한판승 금메달'

리스본 국제남자유도 73㎏급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5·한국마사회)가 올해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원희는 16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06 리스본 월드컵 국제남자유도대회 73kg급 결승에서 다비드 케프키스빌리(그루지아)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원희는 유럽의 강호들이 대부분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1회전부터 결승까지를 모두 한판으로 장식하며 '한판승의 사나이'의 이름값을 해냈다.

"내년 울산서 만납시다"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어제 폐막

"내년 울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2006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6일 오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내년 개최지인 울산에 대회기를 이양했다.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박병열)와 전국종목별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축전은 지난 14일 개최돼 전국에서 온 선수와 임원 2만 2 천54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 선수들은 여수시와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보성군 등에서 축구와 육상, 배드민턴 등 일반종목 29개와 시범종목 5개, 장애인 4개, 대학동아리 2개, 전시종목 1개 등 총 4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축전은 대회 개최기간인 14~16일까지 2박3일동안 1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으며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효율적인 교통·주차대책 등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대회에서는 경기도가 85.07점으로 종합1위를 기록했으며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75.67점으로 종합2위를 기록했고, 서울시가 74.6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17일(월)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결승전(14 : 00·KBS2)

▲메이저리그〈뉴욕Y-미네소타〉(05 : 00·Xports), 〈샌프란시스코-LA다저스〉(09 : 00·Xport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튼햄-맨체스터Utd〉(20 : 00·MBC ESPN)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진흥고-경기고〉(12 : 50·KBS SKY SPORTS)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16 : 00·KBS SKY SPORTS)